

‘거지맵’ 아시나요... 저렴한 한 끼 서로 공유한다

#1 사회초년생 30대 정씨는 식당을 가면 메뉴판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예전에는 1만원 안팎으로 해결했던 한 끼가 요즘에는 1만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지인을 통해 ‘거지맵’이라는 사이트를 접하면서 정씨는 점심 식대 부담을 다소 내려놓게 됐다.

#2 대학생 최모씨(24)는 요즘 식당을 찾기 전에 거지맵부터 확인한다. 한 끼에 1만원을 지불하는 것이 기본이라 학생 입장에서 큰 부담인데 해당 사이트를 보면 5000원 이하 식당도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한다. 나도 괜찮은 식당을 찾으면 직접 등록해 공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식비 절약 문화 확산...가성비 식당 공유 사이트 등장 1만원 이하 가격대·이용자 직접 등록 등으로 큰 호응

고환율·고유가·고물가 ‘3고’에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겹친 비용 상승이 누적, 외식 물가 부담이 빠르게 커지며 저렴한 비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 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가파른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절약 문화가 확산하면서 식비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검저짜개 백반

평균가격은 각 8500원, 7944원으로 나타났다. 비빔밥 한 그릇은 광주 1만600원·전남 9111원, 갈국수는 광주 9000원·전남 9222원으로 집계됐다.

한 끼 식사를 하는 데 1만원 안팎의 돈이 드는 것이다.

가파른 외식 물가 상승 속에서 주머니 사정이 궁한 시민들이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우는 방법을 공유하기 시작한 사이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거지맵’은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



으로 비교적 가격이 낮은 식당을 지도 형태로 정리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이 직접 식당 정보를 등록한 뒤 후기를 남기며 데이터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1만원 이하 ‘가성비’ 식당을 주로 안내함과 동시에 가격 필터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가격 상한선을 정해 식당을 찾아볼 수도 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관련 식당 정보가 빠르게 쌓이고 있다.

2500원 김밥, 4000원 짜장면, 5000원 육회비빔밥 등까지 비교적 저렴한 메뉴들이 상세히 소개된 수십여개의 ‘가성비’ 식당이 등록돼 최근 외식 물가 흐름과 대비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극단적인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비스가 시작된 후 거지맵의 누적 방문량은 6만5000건을 기록했고, 첫 날 1200건이었던 일일 방문 수는 29일째는 7633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커뮤니티에는 “주변에 3500원 짜 장면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거지 맵이 고맙다.”, “동네에 이런 착한 가성비 집이 있었다니 몰랐다. 다 저장했다” 등의 글도 게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국내 소비시장에 절약을 넘어 ‘생존형 소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용 경제학 박사는 “고물가와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가격 중심의 소비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며 “가성비 식당을 공유하는 등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용 기자 yo1404@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발사믹식초 & 올리브오일’ 전문관 오픈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일 건강한 삶을 위해 프리미엄 식재료를 적극 소비하는 식품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 수입 발사믹 식초 & 올리브오일’ 전문관을 새롭게 오픈한다. 사진은 지하 1층 식품관 ‘프리미엄 수입 발사믹 식초 & 올리브오일’ 전문관을 찾은 고객이 매장 관계자로부터 상품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광주신세계, 도심 속 생태계 복원 활동

멸종위기 동물의 날 맞아 푸른길 가드닝 행사

광주신세계가 멸종위기 동물의 날을 맞아 도심 속 생태계 복원을 위해 푸른길 가드닝에 나섰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1일 광주 동구 남광주역 일원에서 ‘푸른길 가드닝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신세계 임직원과 일반 시민 등 50

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도심 속 시민들이 많이 찾는 푸른길에 곤충들의 먹이인 꿀을 공급하는 밀원(蜜源) 식물을 확보해 동식물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정미조팝나무, 수선화, 데이지 등 곤충들에게 꿀을 공급하는 밀원식물 500여본을 정성껏 심었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생태해설사와 동행하는 에코프로모션을 기획해 천연에 서식하는 조류를 비롯해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시민들의 참여인 푸른길이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생태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세계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친환경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용 기자 yo1404@

침체된 지역상권, 수도권 풀림 속 활로 모색

수도권 매출 최대 5배 격차...핵심 상권 집중 뚜렷 정부, 글로벌·테마·골목상권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 구조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내 핵심 상권이 부족하고 매출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상권 육성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총 375억원 규모의 상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풀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상권 분석 결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뚜렷하다. 전국 1227개 주요 상권 가운데 43%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핵심 상권의 경우 64.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서울은 핵심 상권의 35%를 차지하며 소비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인구, 기업, 문화시설 등이 수도권에 밀집된 구조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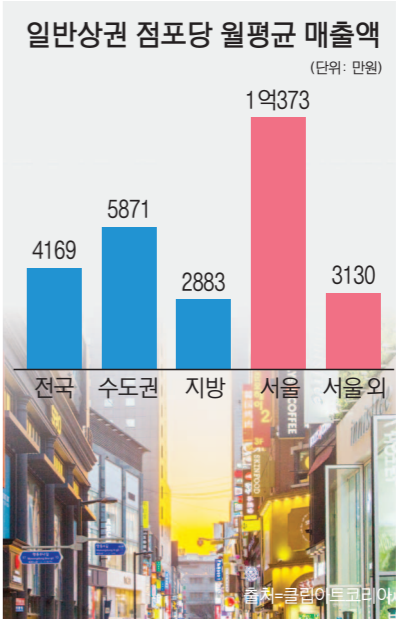
매출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이 2883만원인

반면 수도권은 5871만원으로 약 2배 수준이다. 서울은 1억373만원으로 서울의 지역(3130만원)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핵심 상권 기준으로는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최대 5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 지역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광주는 일반 상권 56개와 핵심 상권 2개, 전남은 일반 상권 59개와 핵심 상권 2개 수준으로, 수도권에 비해 핵심 상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지역 내 소비를 끌어들이는 중심 상권이 부족한 점이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일부 지역은 유동인구 감소와 상권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상권 육성에 나선다. 외국인 관광과 연계한 ‘글로벌 상권’,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강화하는 ‘로컬테마 상권’, 골목상권을 키우는 ‘유망골목상권’ 등 유형별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권 간 연계 프로그램과 부처 협업 사업을 통해 단일 상권 지



원을 넘어 광역 단위의 소비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미식·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만큼, 체험형·관광형 상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상권 간 연계가 활성화될 경우 지역 내 소비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로컬 기업이 핵심점으로 성장할 경우 주변 상권까지 동반 성장하는 파급 효과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이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러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